

기 초 편 랑

콘텐츠가 반복되어 신뢰가 되는 원리
가장 처음 읽는 한 권

포맷의 기초

열심히 만드는데도 안 되는 진짜 이유

홍선장

더 많은 정보는

📷 @captainhooooook

FORMAT BASICS · 제 1 판

안 되는 이유가 실력인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보다는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프롤로그	문제는 '열심히'가 아니었어요	04
1장	포맷? 그게 대체 뭔가요	07
2장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13
3장	그럼 매일 똑같은 걸 올리라는 건가요	18
4장	그럼 나는 뭐부터 하면 될까요	23
에필로그	포맷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28

프롤로그

문제는 '열심히'가 아니었어요

솔직한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00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미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밤늦게까지 영상 만들고, 자막 하나 색깔까지 신경 쓰고, 남들 잘된 영상도 몇 개씩 챙겨 보고요. 그런데도 조회수는 늘 그 자리고, 팔로워는 늘 것 같다가 마는 날이 많죠. 어떤 날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은 마음까지 들고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직 실력이 부족한가 봐. 편집을 더 배워야 하나.' 그런데 제가 오래 지켜본 바로는, 안 되는 이유가 실력인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안 해서도 아니고요. 그보다는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자주 눈에 띄었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할 '포맷'이에요.

포맷이라는 말, 어디선가 들어는 봤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시겠죠. 괜찮아요. 이 글은 바로 그런 분을 위해 만든 거니까요. 마케팅 용어나 어려운 이론은 하나도 안 쓸게요. 우리가 매일 보고 겪는 이야기로만, 옆에서 천천히 설명하듯 풀어드릴 거예요.

다 보고 나면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안 됐구나' 하고, 지금까지 안 보이던 게 눈에 들어오는 감각이요. 그것 하나만 챙겨도 오늘 들인 시간은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럼 편하게 시작해 볼게요.

지금까지 안 보이던 게
눈에 들어오는 감각.

포맷? 그게 대체 뭔가요

실체가 잘 안 잡히시죠. 그 실체부터 하나하나 그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 질문부터 풀고 갈게요. "포맷? 그게 대체 뭔데?" 아마 이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진짜 질문일 거예요. 릴스 만들 때 쓰는 편집 기술 같은 건가, 아니면 계정 키울 때 짜는 무슨 전략인가, 실체가 잘 안 잡히시죠. 그 실체부터 하나하나 그러드릴게요.

사실 포맷이라는 말은 원래 방송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도 잘 아는 MBC 예능 '나 혼자 산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매주 나오는 출연자도 다르고, 그날 보여주는 일상도 매번 다르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굴러가는 방식은 늘 똑같아요. 연예인이 혼자 사는 하루를 관찰 카메라로 찍 보여주고, 그다음 스튜디오에 모인 사람들이 그 영상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죠. 이 짜임새는 몇 년째 그대로예요. 바로 이렇게 '매번 똑같이 지키는 뼈대', 그걸 방송에서 프로그램의 포맷이라고 불러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포맷은 그 프로그램의 정해진 짜임새예요. 출연자도 그날 이야기도 매주 갈아 끼우지만, 이 짜임새만큼은 안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채널을 돌리다가 그 장면이 나오면 ‘아, 나 혼자 산다네’ 하고 바로 알아봐요. 짜임새가 늘 똑같으니까요.

이런 프로그램이 어디 하나뿐인가요. 매주 다른 손님이 나와서 고민을 털어놓는 상담 프로그램도, 매번 다른 재료로 요리를 하는 요리 프로그램도 다 마찬가지예요. 손님도 요리도 매번 바뀌지만,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방식과 끌고 가는 순서는 늘 똑같죠.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안다’고 느끼는 건, 바로 그 늘 똑같은 짜임새 덕분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딱 한 걸음만 옮겨 볼게요. 여러분의 인스타 계정도 사실은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이 올리는 영상 하나하나가 그 프로그램의 한 회차인 거죠. 그러면 포맷이 뭔지 자연스럽게 답이 나와요. 포맷은 내 계정이라는 프로그램이 매번 똑같이 지키는 짜임새예요.

이제 아까 그 질문에 답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포맷은 영상 한 편을 예쁘게 다듬는 편집 기술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려서, 영상 하나를 더 화려하게 만드는 데만 온 힘을 쏟아요. 그런데 포맷은 영상 한 편 안에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영상과 영상 사이에, 계정 전체에 흐르는 거예요. 릴스 하나에 쓰는 잔재주가 아니라, 내 계정을 어떻게 끌고 갈지 정하는 큰 그림에 가까운 거죠.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 포맷을 아주 간단한 레시피처럼 적어볼게요. 아까 그 관찰 예능을 예로 들면 이런 식이에요.

-
- 1 누군가의 혼자 사는 하루를 보여준다.
 - 2 그걸 스튜디오에서 함께 보며 이야기한다.
 - 3 웃음이나 잔잔한 여운으로 마무리한다.
-

딱 이 세 줄이 그 프로그램의 포맷이에요. 여러분 계정도 똑같아요. 어떻게 시작해서, 뭘 보여주고, 어떻게 끝내는지, 이 세 줄로 적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내 포맷인 거죠. 지금 당장 술술 안 나와도 괜찮아요. ‘아,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만 잡으셔도 오늘은 충분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방송국은 왜 굳이 그 짜임새를 안 바꾸고 계속 지킬까요? 매번 새롭게 바꾸면 더 신선할 텐데 말이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똑같은 느낌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나 혼자 산다’를 트는 사람은 매주 그 편안하고 친근한 관찰 예능의 느낌을 기대하면서 앉거든요. 우리가 단골 식당을 그 아는 맛 때문에 다시 찾아가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포맷이 궁극적으로 하려는 건, 볼 때마다 늘 똑같은 경험을 안겨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낯선 느낌보다 아는 느낌을 훨씬 편해하거든요. 늘 같은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면, 사람들이 내 계정을 떠올리기만 해도 머릿속에 나의 그림이 딱 그려져요. 다음에 뭐가 나올지, 어떤 느낌일지 미리 아니까 마음 놓고 다시 찾아오는 거죠.

반대로 이 짜임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엔 이 유형 따라 만들고, 다음 주엔 또 다른 유형 따라 만들고, 그때그때 눈에 띄는 걸 올리다 보면 영상마다 결이 다 달라져요. 만드는 사람은 분명 열심히 한 건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계정이 매년 다른 느낌이라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의 나름 괜찮아 보여도, 계정 전체를 보면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하는 물음표만 남죠.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팔로우 버튼을 누를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장에서 딱 이거 하나만 챙기고 가세요.

1장 요약

포맷은 무슨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내 계정이라는 프로그램이 볼 때마다 늘 똑같은 경험을 주려고 매번 지키는 짜임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영상만 잘 만들면 부족한지, 사람 이야기로 풀어볼게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짜임새를 정하는 게 좋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그냥 영상만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왜 영상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한지, 이번에도 어려운 말 없이 사람 이야기로 풀어볼게요.

사람은요, 다음에 뭐가 올지 예상이 되면 마음을 놓고, 예상이 안 되면 슬그머니 멀어져요. 이건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는 괜히 조심스럽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모르니까요. 그런데 몇 번 보고 익숙해지면 어느새 마음이 편해지고 농담도 주고받게 되죠.

믿음도 똑같아요. 만날 때마다 말이 달라지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길 해도 어쩔
지 못 믿겠잖아요. 반대로 언제 봐도 한결같은 사람한테는 저절로 믿음이 가고요.
왜 그럴까요. 한결같다는 건 곧 예상이 된다는 거고, 예상이 되니까 마음이 놓이
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인스타에서 누군가를 팔로우하는 것도 딱 이 마음이에요. 이 계정이 앞
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보여줄 것 같으면 팔로우를 누르는 거죠. 팔로우는
사실 '앞으로도 계속 볼게요'라는 작은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올라오는 게 매번 다
르면, 앞으로 뭘 보여줄지 짐작이 안 되니까 굳이 그 약속까지 할 마음이 안 들어
요. 좋아요 한 번 누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여기에 하나만 더 보탬게요. 인스타에는 우리를 도와주는 기계가 하나 있어요. 흔히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건데, 어렵게 볼 것 하나도 없어요. 이 기계를 취향을 잘 아는 배달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배달부가 하는 일은 딱 하나거든요. 내 영상을 좋아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데려다주는 거예요. 그런데 배달을 하려면 이 계정이 뭐 하는 곳인지부터 알아야 하잖아요. 요리 계정이면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운동 계정이면 운동하는 사람한테 데려다줘야 하니까요.

그런데 매번 다른 게 올라오면 이 배달부도 헛갈려요. ‘이걸 대체 누구한테 갖다줘야 하지?’ 하고요. 그러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조금씩 뿌려보고, 반응이 시원찮으면 슬그머니 배달을 멈춰버려요. 우리가 흔히 ‘알고리즘을 못 탔다’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배달부가 내 계정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몰라서 생기는 일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요. 포맷을 잡는다는 건, 보는 사람의 마음도 얻고 그 배달부의 도움도 함께 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게 흔히 우리가 겪는 문제도 같이 풀어줘요. 매번 ‘오늘은 뭘 올리지’ 하고 빈 화면 앞에서 시간을 다 써버리는 일, 어쩌다 한 편이 잘 터졌는데 다음 편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을 봐도 왜 잘됐는지 몰라서 다시 못 만드는 일. 전부 그 이유라고 하긴 어렵지만, 짜임새가 없을 때 이런 일이 자주 생기는 건 맞아요. 시작과 끝을 매번 새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 준비가 조금 수월해지고, 무엇을 똑같이 하고 무엇을 바꿨는지 기록이 남으니 잘된 편을 되짚어볼 근거도 생기죠.

2장 요약

사람도 알고리즘도, 예상이 되는 쪽에 마음을 놓는다. 그리고 짜임새는 매번 처음부터 고민하는 부담을 조금씩 덜어준다.

그럼 매일 똑같은 걸 올리라는 건가요

여기 오해가 하나 있어요. 그것만 풀면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1장에서 포맷은 ‘틀은 지키고 내용은 매번 바꾸는 것’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슬슬 이런 걱정이 들 거예요. ‘틀을 계속 지키라니, 그럼 매일 비슷한 걸 올려야 하잖아. 나도 지겹고 보는 사람도 질리지 않을까?’ 아주 자연스러운 걱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오해가 하나 숨어 있어요. 그 오해만 풀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우리 집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엄마가 차려주는 밥은 반찬이 날마다 다르잖아요. 오늘은 계란말이, 내일은 생선, 모레는 나물.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다 ‘엄마 밥’이라고 느껴요. 메뉴는 매일 바뀌어도 ‘엄마 밥’이라는 큰 느낌은 늘 그대로니까요. 반대로 어느 날은 엄마 밥, 어느 날은 낯선 배달 음식, 어느 날은 또 다른 집 음식, 이렇게 정체가 계속 바뀌면 ‘엄마 밥’이라는 느낌 자체가 안 생기죠.

포맷도 이거랑 똑같아요. 큰 틀은 늘 익숙하게 지켜주고, 그 안 내용만 매번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겨운 반복이 아니예요. 익숙한 틀이 있으니 사람들이 편하게 다시 찾아오고, 내용이 매번 다르니 질리지 않는 거죠. 이 둘을 같이 가져가는 게 포맷이에요.

우리 동네 단골 카페를 떠올려도 똑같아요. 사장님은 갈 때마다 늘 비슷하게 웃으며 맞아주고, 우리는 늘 앉던 자리에 앉게 되죠. 그런데 그날그날 나누는 대화는 매번 다르잖아요. 어떤 날은 날씨 얘기였다가, 어떤 날은 요즘 힘든 일 얘기였다가. 큰 틀은 편안하게 똑같은데 그 안 대화는 매번 새로우니까, 우리는 질리기는 커녕 자꾸 그 카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익숙한 틀 안에,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나만의 장면 하나가 있으면 훨씬 좋아요. 이렇게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나만의 장면, 그걸 저는 시그니처라고 불러요. 말은 좀 멋있어 보여도 뜻은 아주 단순해요. 사람들이 '아, 이거 하면 그 사람이지' 하고 딱 떠올리는 그 한 장면이거든요.

내 이야기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은 안 하지만, 계정을 막 시작한 초창기에 저는 영상마다 립밤을 바르면서 시작했어요. 무슨 대단한 연출이 아니었어요. '이제 말할 준비가 됐습니다' 하는 신호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냥 습관 같은 작은 동작이었죠.

그런데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저를 '립밤 선생님' 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저를 만나는 분들은 선물로 립밤을 챙겨오기도 했어요. 제가 립밤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립밤 하나로 각인이 된 거예요. 그게 시그니처가 하는 일이에요.

화려해서 각인된 게 아니에요. 매번 빠지지 않고 똑같이 반복됐기 때문에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니처는 대단한 걸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는 작은 동작 하나를 끝까지 안 빼먹는 일이에요.

시그니처가 꼭 대단한 연출일 필요도 없어요. 매 영상 끝을 늘 똑같은 말 한마디로 마무리하는 것도, 늘 같은 물건을 손에 들고 시작하는 것도 다 시그니처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화려함이 아니라, 매번 빠지지 않고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 시그니처가 왜 그렇게 힘이 세냐면요. 사람들은 내 수많은 영상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진 못해도, 그 반복되는 장면 하나만큼은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그 장면이 곧, 앞에서 말한 '볼 때마다 똑같은 경험'의 한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억할 건 딱 하나예요.

3장 요약

반복은 지겨운 게 아니라, 사람을 편하게 만들고 다시 찾아오게 하는 힘이다.

그럼 나는 뭐부터 하면 될까요

누구나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만 드릴게요.

여기까지 왔으면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되지?’ 싶으실 거예요. 오늘은 어려운 데까지 안 갈게요. 누구나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드릴 거예요. 먼저,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나는 어떤 걸 매일 해도 안 질릴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포맷은 오래 계속할 수 있어야 비로소 힘이 붙거든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걸 골라도, 내가 두 달 만에 지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잘한 걸 무작정 따라 하기 전에, 내가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게 뭔지부터 찾는 게 순서예요.

혹시 뭘 골라야 할지 막막하면, 이런 힌트로 찾아보세요.

- 1 사람들이 나한테 유독 자주 물어보는 것
 - 2 남들은 귀찮아하는데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것
 - 3 내가 이미 몇 년째 자연스럽게 해오던 것
-

거기에 씨앗이 있을 때가 많아요. 대단하고 거창한 걸 찾으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멀어져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걸 알아보는 게 먼저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평소에 사람들한테서 "너는 냉장고에 뭐만 좀 있으면 똑딱한 끼를 잘 차리더라" 하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해봐요. 남들은 별거 아니라고 넘기는 일인데, 나는 그게 재밌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면, 바로 거기에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럼 '냉장고에 있는 걸로 한 끼 만들기' 같은 게 내 포맷의 출발점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멀리 거창한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자연스럽게 하던 데서 찾는 거예요. 훨씬 마음도 편하고 오래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요. 평소에 좋아하던 계정 두어 개를 오늘은 조금 다른 눈으로 봐 보세요. 영상 내용 말고, 그 계정이 매번 똑같이 하는 게 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시작

어떻게 시작하는지

중간

늘 나오는 장면이 뭔지

끝

어떻게 끝맺는지

이렇게 시작과 중간과 끝으로 나눠서 보면 그 계정의 짜임새가 슬슬 눈에 들어와요. 그 반복되는 짜임새를 찾아내는 눈이 한번 생기면, 그때부터는 잘된 계정들이 다 교과서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까지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물론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안 질릴 씨앗을 찾았다면 그다음은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맷으로 다듬는 일, 반응을 보고 방향을 잡아가는 일이 남아 있어요. 겁먹을 일은 아니에요.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서와 방법이 있는 일이라서, 하나씩 밟아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만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본 건 아직 콘텐츠 한 편의 구조예요. 영상 하나를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내는지, 그 짜임새요. 여기까지만 해도 만드는 일은 훨씬 수월해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계정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오는 건, 영상 한 편의 구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구조가 계정 전체에서 반복되면서 만들어지는 ‘일관된 경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의 포맷은 결국 계정의 포맷으로 넘어가야 해요. 그 둘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게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에 필로그

포맷은 타고나는 게 아니예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잘되는 계정을 보면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원래 감이 좋은가 봐. 나는 저런 재주가 없어.' 저도 오래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여러 계정을 곁에서 지켜보다 보니, 잘되는 곳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짜임새가 또렷하다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계획한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사람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적어도 이걸 타고난 재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방법이 있는 일이라면 배워서 나아질 수 있는 거고요.

제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포맷이라는 걸 꽤 깊숙이 파고들고 있어요. 콘텐츠를 어떻게 짜는지에서 멈추지 않고, 그 콘텐츠를 보는 사람이 무엇에 마음을 놓고 무엇에 등을 돌리는지까지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결국 사람을 연구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포맷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해 준다고 믿어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믿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건 딱 이거예요.

- 1 포맷은 내 계정이 볼 때마다 늘 똑같은 경험을 주려고 지키는 짜임새다.
 - 2 그게 있어야 사람도, 그 배달부 같은 기계도 나를 알아본다.
 - 3 매일 똑같이가 아니라, 틀은 지키고 내용만 바꾸는 것이다.
-

이 세 가지만 손에 쥐어도 앞으로 계정을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지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계정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계정을 '포맷'이라는 눈으로 다시 봐 보세요. 어제까지 안 보이던 게 분명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 이거 나도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면, 이 글은 제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 포맷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궁금해지고 관심이 생겼다면, 부탁이 하나 있어요. 앞으로 제가 계정에서 하는 이야기에든 한 번씩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저는 거기서 포맷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다듬고, 어떻게 오래 끌고 가는지를 계속 풀어내고 있거든요. 오늘 배운 이 눈으로 제 계정을 다시 보시면, 그동안 무심코 흘러들던 이야기들이 다르게 들릴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나씩 같이 쌓아가면 돼요.

그리고 읽다가 포맷에 대해 궁금한 게 생기면 혼자 두지 마세요. 제가 올리는 콘텐츠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디엠으로 문의해 주셔도 돼요.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저도 더 정확하게 답해드릴 수 있어요.

변화는 늘 관심에서 시작돼요.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궁금했다면,
이미 그 시작에 서 계신 거예요.

흑선장

더 많은 정보는

📷 @captainhooooook

FORMAT BASICS